

만인이 지켜낸 오늘

무명옷 소매를 걷어붙이며 맞댄 건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의 어깨였습니다
성벽의 틈을 메운 것은 차가운 돌덩이가 아니라
만인의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밀려오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내 자리를 지킨 까닭은
나는 결코 쓰러져 흠이 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만큼은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피할 곳 없는 성벽 위에서 스스로 벽이 되어
하룻밤의 안녕을 뒤로하고 목숨을 바친 건
자신들의 어둠이 우리의 빛이 될 것임을
이미 가슴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인의 심장이 멈춘 적막 위로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흐릅니다
당신들이 채 쓰지 못한 나날들이 모여
우리의 무구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죽어 우리가 살았기에
우리는 살아서 당신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은
당신들이 몸소 남겨준 가장 뜨거운 유산입니다